이스트스프링 업종일등 증권투자신탁 제1호[주식]

2025년 06월말 기준

투자목적 및 전략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대형 우량주 중심의 국내 주식에 투자하여 주식의 가격 상승에 따른 자본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합니다.

- 리스크관리팀에서 금융공학기법을 활용한 포트폴리오 구성 프로세스 확립, 위험에 대한 사전적인 정보제공 및 운용성과에 대한 분석을 통해 운용업무 및 포트폴리오 위험관리에 대한 지원을 합니다.

펀드내역

펀드규모(NAV) 178억 원

펀드유형 주식형
-주식 편입비 : 60% 이상

설정일

(운용펀드 : 2004년 12월 21일)

- 클래스 A : 2010년 08월 12일
- 클래스 A-E : 2014년 06월 11일
- 클래스 C : 2010년 07월 26일
- 클래스 C-E : 2012년 02월 13일
- 클래스 C-P2(연금저축) : 2015년 08월 20일
- 클래스 C3 : 2010년 10월 25일
- 클래스 C4 : 2010년 10월 25일
- 클래스 C5 : 2010년 10월 25일
- 클래스 S : 2014년 04월 22일
- 클래스 S-P2 : 2017년 05월 23일

벤치마크 KOSPI 100%

신탁업자 SC제일은행

환매대금 지급일

구분	기준가격 적용일	환매대금 지급일
15시 30분 이전	2영업일	4영업일
15시 30분 경과후	3영업일	4영업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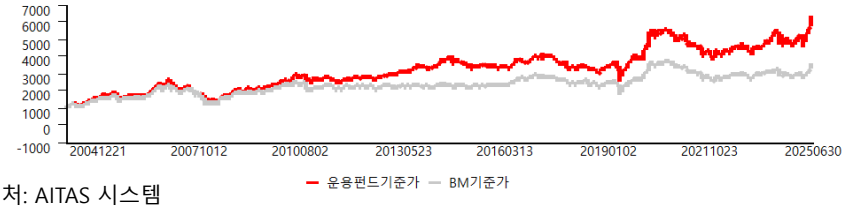
투자위험등급 2등급(높은 위험)

1	2	3	4	5	6

펀드 운용 성과

	누적수익률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2년	3년	5년	설정이후
운용펀드	15.25%	27.46%	32.36%	12.87%	39.20%	55.07%	76.30%	522.57%
클래스 A	15.14%	27.01%	31.37%	11.02%	34.74%	47.61%	62.31%	126.54%
클래스 A-E	15.17%	27.14%	31.66%	11.57%	36.06%	49.81%	66.38%	72.07%
클래스 C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클래스 C-E	15.13%	26.98%	31.31%	10.92%	34.48%	47.18%	61.51%	84.02%
클래스 C-P2(연금저축)	15.15%	27.07%	31.51%	11.30%	35.40%	48.71%	64.33%	47.97%
클래스 C3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클래스 C4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클래스 C5	15.13%	26.98%	31.31%	10.91%	34.48%	47.18%	61.51%	110.83%
클래스 S	15.17%	27.16%	31.70%	11.64%	36.22%	50.05%	66.82%	80.58%
클래스 S-P2	15.18%	27.20%	31.79%	11.82%	36.78%	51.07%	68.86%	91.01%
벤치마크	13.86%	23.80%	28.01%	9.79%	19.79%	31.68%	45.69%	247.36%

- 운용펀드 수익률은 보수 차감 전 수치입니다.
- 설정 이후 벤치마크 수익률은 운용펀드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상기 투자실적은 과거 실적을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실적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클래스별 설정일이 달라 설정 이후 수익률은 클래스별로 상이하며, 보수 수준 차이로 인해 클래스별 성과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세전 수익률)
- 최초설정일 이후 전액환매가 된 클래스의 경우 기간별 누적수익률은 재설정되는 날로부터 재산정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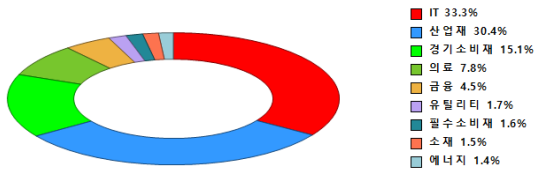


출처: AITAS 시스템

자산 구성 현황 (2025년 06월말 기준)

<전체>

<주식 업종별>



상위 10개 보유 종목 (2025년 06월말 기준 주식비중)

종목명	업종명	비중(%)
삼성전자	전기·전자	11.9
SK하이닉스	전기·전자	11.4
두산에너빌리티	기계·장비	5.0
와이지엔터테인먼트	오락·문화	4.5
하이브	오락·문화	3.5

종목명	업종명	비중(%)
현대건설	건설	3.5
HD현대중공업	운송장비·부품	2.3
감성코퍼레이션	코스닥 유통	2.2
일진전기	전기·전자	2.0
HD현대인프라코어	기계·장비	2.0

본 자료는 고객에 대한 단순 정보제공의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수익증권의 매입을 권유하거나 광고하기 위하여 작성된 자료가 아닙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당사 홈페이지 외에 게시할 수 없으며 기존 가입고객 이외에는 교부할 수 없습니다. 집합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운용 결과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본 상품을 취득하시기 전에 투자대상, 환매방법 및 보수 등에 관하여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시장전망 및 운용계획은 특정시점의 시장상황을 바탕으로 서술한 것으로서 고객과의 합의나 확약을 위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며, 실제의 운용 및 실현 수익률은 시장상황의 변화에 따라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본 자료에 포함된 모든 정보는 당사의 승인 없이 복제되어 유통될 수 없습니다.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종류형 집합투자증권에 부과되는 보수 · 수수료의 차이로 운용실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외투자상품의 경우 환율의 변동에 따라 자산가치가 변동되거나,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으로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환율변동에 의한 환차익은 과세대상입니다.

보수 및 수수료

보수(순자산총액 기준)

- 클래스 A : 총 연 1.675% (판매 0.9%)
- 클래스 A-E : 총 연 1.175% (판매 0.4%)
- 클래스 C : 총 연 2.275% (판매 1.5%)
- 클래스 C-E : 총 연 1.775% (판매 1%)
- 클래스 C-P2(연금저축) : 총 연 1.425% (판매 0.65%)
- 클래스 C3 : 총 연 2.025% (판매 1.25%)
- 클래스 C4 : 총 연 1.905% (판매 1.13%)
- 클래스 C5 : 총 연 1.775% (판매 1%)
- 클래스 S : 총 연 1.125% (판매 0.35%)
- 클래스 S-P2 : 총 연 0.975% (판매 0.2%)

(공통사항)

운용 0.72%, 신탁 0.04%, 사무관리0.015%

선취수수료

- 클래스 A: 납입금액의 1.0% 이내
- 클래스 A-E : 납입금액의 0.5% 이내
- 클래스C/C-E : 없음

환매수수료

없음

시장동향 및 운용현황

6월 KOSPI는 전월 대비 13.86% 상승한 3,071.70pt, KOSDAQ은 6.42% 오른 781.5pt로 마감했습니다. 글로벌 관세 협상이 완화 기조로 전환되며 대외 불확실성이 다소 해소된 가운데, 국내 대통령 선거 이후 정책 기대감이 증시를 견인했습니다.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단기적으로 부담 요인으로 작용했으나, 미국의 조기 개입 등으로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습니다. 국내에서는 추경 기대감과 함께 신정부 주요 공약인 AI 고속도로, 디지털화폐 인프라 구축 등 정책 이슈가 본격 논의되면서 인터넷, 플랫폼 섹터가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원전 투자 및 에너지 고속도로 정책 기대감 역시 유틸리티 업종 상승에 기여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전월 대비 1.81% 하락한 1,356.4원을 기록하며 원화 강세를 보였고, WTI 기준 국제유가는 7.11% 상승한 65.11달러로 마감했습니다. 수급 측면에서는 외국인이 2조 7,379억 원을 순매수했고, 기관과 개인은 각각 1조 8,367억 원, 5,491억 원 순매도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실적 개선과 유럽의 방위비 지출 확대에 따른 수혜가 예상되는 방산 업종, 2분기부터 대형 IP 복귀가 예상되는 엔터 업종, HBM 투자 수혜와 레거시 메모리 가격 상승에 따른 이익 증가가 기대되는 반도체 업종이 긍정적으로 기여하였으나 스테이블 코인 이슈가 부각된 인터넷 업종과 금융 업종의 상승이 펀드 성과에 부정적으로 기여하였습니다. 종목별로는 원전 수출 기대감이 부각된 두산에너빌리티, K2 전차 수출이 예상되는 현대로템, HBM 수혜가 예상되는 SK하이닉스가 펀드 성과에 긍정적으로 기여한 반면에 스테이블 코인 발행 이슈가 부각된 카카오 그룹주 및 삼성생명 미보유 효과가 펀드 성과에 부정적으로 기여하였습니다.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되는 삼성전자와 방산주 일부를 차익실현하였고 이를 활용해 엔터투어 업종과 기계 업종 내 종목 교체를 실시하였습니다.

시장전망 및 운용계획

7월 국내 주식시장은 전월 급등에 따른 기술적 부담을 해소하는 과정에 들어설 것으로 예상합니다. 미국의 관세 협상 이슈 재부각, 연방준비제도의 통화정책 방향성 등 대외적 요인 또한 단기적인 변동성 확대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법 개정 및 내수 부양책 등 정책에 관한 기대는 여전히 작용하며 증시에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반적으로 국내 증시는 상승 속도를 조절하는 동시에 하반기 및 2026년 이익 모멘텀에 기반한 선별적인 종목 장세가 전개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국내 주식시장은 관세에 대한 우려가 피크를 지났다는 낙관론과 신정부의 정책 모멘텀을 동시에 반영하여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원/달러 환율 또한 강세로 전환되며 외국인의 투자자 순매수가 9개월만에 관찰되는 등 특징적인 수급세를 보였습니다.
단기적으로 유동성 장세의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하반기는 국내 경제의 불확실성이 점증될 것으로 판단함에 따라 증시 상승 구간 내 점진적으로 포트폴리오의 액티브 리스크를 축소할 계획이며 관세 영향이 제한된 업종 및 종목으로 포트폴리오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반도체 업종은 HBM의 지속적인 성장과 기존 DRAM을 HBM으로 전환하면서 발생하는 Capa Loss로 인해 공급의 병목 현상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이에 하반기 DRAM의 가격 강세 흐름이 이어질 개연성이 높아 해당 업종에 대한 관심을 높일 계획입니다.

하반기 BTS, 블랙핑크 등 대형 아티스트들의 복귀가 예상되며 공연의 확대는 엔터 업체의 이익 증가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과거 대비 높은 티켓 가격과 모객 수는 실적 추정치의 상향을 이끌 것으로 판단되며 타 업종 대비 관세의 영향력이 제한된다는 측면에서 엔터 업종에 대한 관심을 높게 유지할 계획입니다.

원전 사업의 경우 미국과 유럽, 중국 등 대다수 국가에서 원전 복귀의 흐름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원전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고 있고 유럽의 경우 탈탄소 에너지원으로 원전을 확대 적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글로벌 전력 부족 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원전에 대한 투자가 과거 대비 빠른 속도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원전을 설치할 수 있는 국가가 미국, 러시아, 중국, 한국으로 제한된 가운데 미국의 원전 확대 움직임은 한국 업체의 기회 요인으로 작용할 개연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에 해당 밸류체인에 대한 관심을 높게 유지할 계획입니다.

시장의 우려감으로 인해 펀더멘탈 대비 가격 조정이 컸던 업종 및 종목에 대한 비중을 점진적으로 상향하여 균형감 있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안정적인 수익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본 자료는 고객에 대한 단순 정보제공의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수익증권의 매입을 권유하거나 광고하기 위하여 작성된 자료가 아닙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당사 홈페이지 외에 게시할 수 없으며 기존 가입고객 이외에는 교부할 수 없습니다. 집합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운용 결과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본 상품을 취득하시기 전에 투자대상, 환매방법 및 보수 등에 관하여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시장전망 및 운용계획은 특정시점의 시장상황을 바탕으로 서술한 것으로서 고객과의 합의나 확약을 위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며, 실제의 운용 및 실현 수익률은 시장상황의 변화에 따라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본 자료에 포함된 모든 정보는 당사의 승인 없이 복제되어 유통될 수 없습니다.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종류형 집합투자증권에 부과되는 보수 · 수수료의 차이로 운용실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외투자상품의 경우 환율의 변동에 따라 자산가치가 변동되거나,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으로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환율변동에 의한 환차익은 과세대상입니다.

■ 포트폴리오 리스크 분석 (2025-06-30 기준)

리스크 구성 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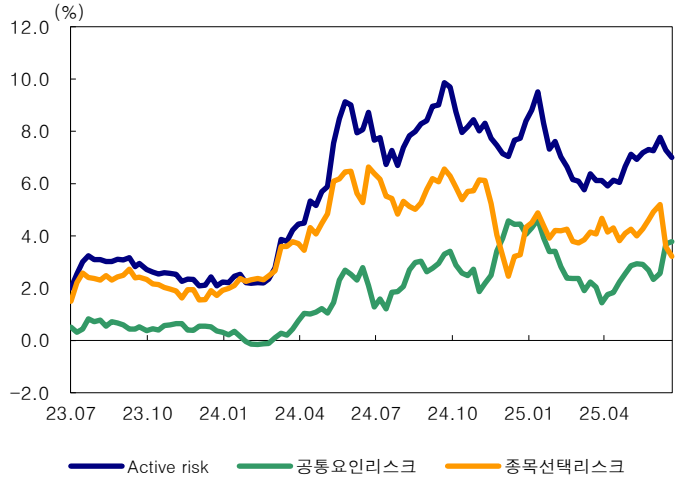
	2025-06-30	2025-05-30
Active Risk [1]	7.46%	7.31%
공통요인 리스크 기여도 [2]	4.09%	2.69%
- 스타일 리스크 기여도	2.73%	2.13%
- 섹터 리스크 기여도	1.36%	0.56%
종목선택 리스크 기여도 [3]	3.37%	4.62%
베타	1.07	1.03

1. Active Risk는 벤치마크 대비 펀드의 초과 수익률에 대한 변동성으로 공통요인 리스크와 종목선택 리스크로 구분됩니다. Active Risk 수치가 높을수록 펀드가 벤치마크에 비해 적극적으로 운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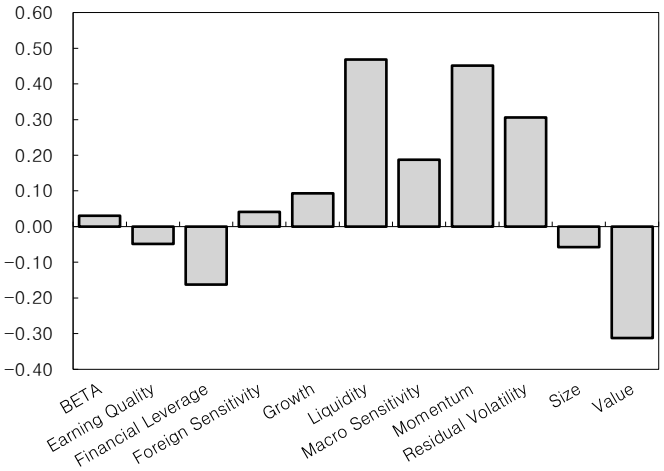
2. 공통요인 리스크는 스타일 및 업종 리스크와 공통요인간의 상관관계로서, 주식시장 전반에 미치는 리스크를 의미 합니다.

3. 종목선택 리스크는 경영성과, 노사분규 등과 같은 개별기업의 특수한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리스크로서 공통요인에 의해서 설명되지 않는 기업 고유의 리스크를 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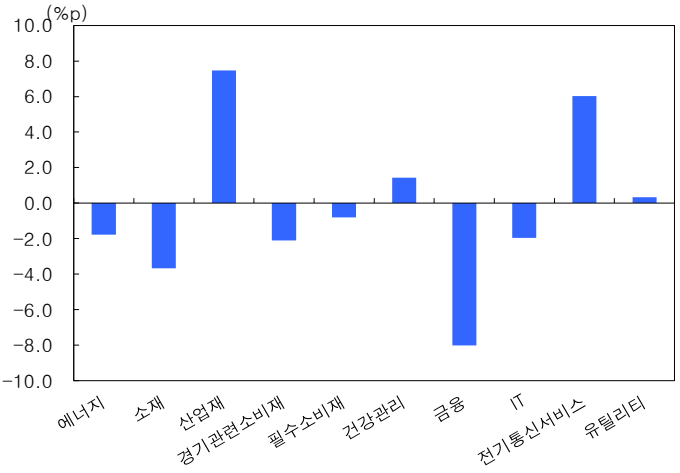
<Active Ris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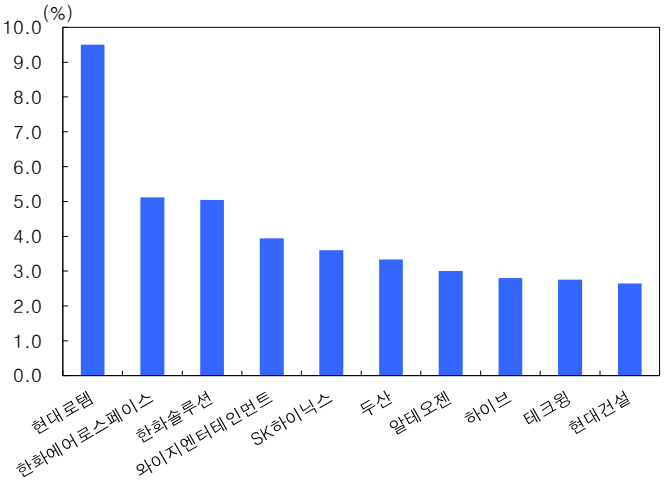
<벤치마크 대비 스타일 비중차>



<벤치마크 대비 섹터별 비중차>



<종목별 리스크 기여도>



분석 결과

*종목별 리스크 기여도는 5월말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6월말 현재, 업종일등증권1[주식] 펀드의 Active Risk는 7.46%로 전월대비 증가하였습니다.

▶ 종목수는 전월대비 1개 종목 증가하여, 71개 종목을 유지하고 있고, 전반적인 포트폴리오 구성성향은 변동이 없었으나, 벤치마크 대비 '전기통신서비스', '산업재' 등의 비중 차이는 증가하였고, '건강관리', '금융' 등의 비중 차이는 감소하였습니다. 종목 기준으로 본다면, 5월말 기준으로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의 리스크 기여도는 상승하였고 '알테오젠' 등의 리스크 기여도는 하락하였습니다.

▶ 종목 선택으로 인한 리스크는 전월대비 감소하였고, 종목집중 위험은 적절하게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 동펀드는 'Value'보다는 'Liquidity'가 높은 스타일의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본 자료는 고객에 대한 단순 정보제공의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수익증권의 매입을 권유하거나 광고하기 위하여 작성된 자료가 아닙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당사 홈페이지 외에 게시할 수 없으며 기존 가입고객 이외에는 교부할 수 없습니다. **※집합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운용 결과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본 상품을 취득하시기 전에 투자대상, 환매방법 및 보수 등에 관하여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시장전망 및 운용계획은 특정시점의 시장상황을 바탕으로 서술한 것으로서 고객과의 합의나 확약을 위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며, 실제의 운용 및 실현 수익률은 시장상황의 변화에 따라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본 자료에 포함된 모든 정보는 당사의 승인 없이 복제되어 유통될 수 없습니다.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종류형 집합투자증권에 부과되는 보수 · 수수료의 차이로 운용실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외투자상품의 경우 환율의 변동에 따라 자산가치가 변동되거나,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으로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환율변동에 의한 환차익은 과세대상입니다.
※영국 프루덴셜 금융그룹은 미국의 푸르덴셜(Prudential Financial Inc.)과 영국 M&G plc의 자회사인 Prudential Assurance Company의 관계회사가 아닙니다.

eastspring investments